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완전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고서는 완전히 행해지지 않는다.
2. 완전히 행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육적인 세계에서도 그때마다 해당되는 것을 주신다.
3. 가령 나무로 집을 지을 때, 아예 100% 완벽하게 지어 놓으면 평생 동안 쓸 수 있다. 관리를 잘하면 100년, 500년, 700년, 1000년까지도 쓴다. 그런데 완벽하게 집을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집을 짓겠다는 정신>도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도 완전히 행하려면, <환경>도 필요하고, <정신>도 필요하고, <완전히 행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4. <나무 집>을 지어서 살려면 아예 완전하게 나무 집을 만들어야 그 집에서 살 수 있듯이, <자기>도 아예 ‘완전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행하는 것마다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다.
5. 완전하게 행하려면, 뇌 덩어리 자체를 ‘완전히 행하는 뇌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근본은 ‘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6. <뇌신경>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으로 ‘신경’이 움직이고, ‘신경을 확대시킨 몸’이 움직인다.

7. <생각>으로 ‘뇌신경’ 도 작동하고, ‘몸’ 도 작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밝히시기를, “<생각>이 ‘생명의 근원’ 이다.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행해진다.” 하셨다. 고로 <뇌, 생각>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행하도록 해야 된다.
8.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신의 생각’ 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 <흐리멍덩한 정신, 사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 으로 안 만들어진다.
9. <생각>이 완벽해야 ‘완벽한 작품’ 이 나온다. 가령 생각에서 ‘길이 20m, 넓이 7m 황금비율로 만들겠다.’ 생각하고 만들었을 때 그 존재물이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되는 대로 만들면, 뒤죽박죽 된 존재물이 나온다.
10. <생각>에서 ‘확실한 구상, 목적, 명령’ 을 해 놓고 움직여야 된다.
11.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한다. 고로 하나님은 <행하는 것>을 안 보시고 “보나 마나 저 생각을 한 대로 그대로 한다.” 하고 바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 생각이 ‘하나님’ 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네 생각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 하시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12. 항상 <생각>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흐리멍덩한 생각>은 ‘흐리멍덩한 행동’ 을 낳게 된다.

13. <생각>이 온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합당해야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다른 길은 다 ‘절벽 길, 암벽 길’ 이다. 그 길은 가 봤자 뻔하다. 떨어져 죽는 길이다.
14. <온전한 생각>을 하고 살 때 ‘신의 생각’ 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신의 생각’ 이 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주>는 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야기해 준다.
15. 선생이 극적으로 기도하고 연단받고 배울 때 깨달은 것 중의 하나가 ‘인간의 무지’ 였다. <자기>는 다 안다고 하나, 99%는 모르고 행하고 있었다. 몰라서 죽고, 몰라서 사고 나고, 몰라서 재산도 날리고, 몰라서 더 이상 할 수 없게도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자기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것’ 이기 때문에 알게 해 주시고, 어느 때는 환경을 통해서 ‘바른 길’ 로 가게 해 주신다.
16.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바른 길’ 로 가도록 ‘환경’ 을 트신다. 고로 주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행하신다.” 했다.
17. 하나님은 ‘생각, 마음’ 을 틀기도 하신다. <생각>만 하면, 몸은 그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도우실 때 ‘마음, 생각’ 을 통해서 완전하게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트

시면, 그대로 꼼짝도 못 하고 가게 된다.

18.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보면 ‘수백, 수천 가지’로 행하시는데, 이는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선생만 알게 행하신다. 어느 때는 선생에게도 안 알려 주고 여건을 들어서 돕기도 하신다. 왜? 선생이 알면 말하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로 합당하게 들어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다.
19. 저마다 자기를 ‘완전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완전한 덩어리>를 만들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몸 덩어리>, 그보다 더 완전한 것은 <뇌 덩어리>,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각 덩어리>다.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다.
20. 선생은 성경의 ‘불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10대 때 기성에서 주장하는 불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기성에서는 “하나님이 불 심판을 하시면, 지구가 완전히 녹아진다. 지구가 멸망한다.” 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서 “각 나라마다 원자폭탄이 있으니, 그것이 터지면 지구가 녹는다.” 혹은 “그것이 아니다. 우주에 변화가 일어나서 태양이 지구 가까이 온다. 그래서 지구가 녹는다.”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 “지진이 나서 지구가 녹는다.” 하면서 각종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푼 것이다. 선생은 그와 같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봤다. 순간 녹아 없어질 지구를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만드셨겠느냐? 그럴 리가 만무

하다. 사람을 봐도 그러하다. 새로운 집을 지어 놔는데 누구 때문에 화난다고 멀하거나, 누가 말을 안 듣는다고 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체질에 녹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이 녹아지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를 축소하면 ‘인간’이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뜨거운 불>은 ‘말씀’이다. 선생은 이를 깨닫고 20대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와도 지구는 돈다. 해는 뜬다. 하나님은 지구를 더 살피시고 도우신다.” 했다.

21.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불 심판’을 ‘지구 멸망’으로만 봤다. 성경을 잘못 푸니,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고생만 했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서 도망가거나, 혹은 “곧 휴거된다. 휴거돼서 올라가는 광경을 생각해 보아라! 기쁘지 않느냐?” 하면서 목청 높여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는 단 한 명도 휴거가 안 됐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안 오니 “성경은 거짓말이다. 비원리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하면서 불교로 가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히 시대 말씀을 전하고 다니자.” 하셨다. <태양같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천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기성의 2세들이 이 역사에 오게 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오게 하셨다. 고로 <이 역사>는 월명동이 뒤바뀌듯 시대를 뒤바뀌 놓는 역사가 됐고, <확실성 있는 역사>가 됐다. <성약역사>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역사가 진행될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상상도 못 하게 찬란해진다.

22. <때>가 돼서 하나님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 사람과 다르게 얼굴도, 눈도 태양같이 빛이 난다.’ 하면서 크게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예수님을 봐도, 그는 길가에 있는 한 포기의 풀같이 너무 순수하다고 했다. 소리도 안 지르고, 분을 내지도 않는다고 했다. 왜 그렇게 순한고 하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3. 만들어야 목적인 것이 창조되듯이,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4.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두고 행해서 만들듯이, <자기를 만들 때>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라.

25.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도 완전하게 때를 밀지 않고 온다. 그러고서 집에 오니 몸이 꿈꿈하고 간지럽다고 하면서 다시 물을 받아 놓고 씻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따르는 자>도 그러하고, <백성>도 그러하다. 왜 <죄의 때>를 밀다가 마느냐? <신부들>인데 100%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다.

26. <죄 회개>도 100% 해서 깨끗이 하고, <육>도 100% 깨끗해야 된다. <머리를 감을 때>도, <이를 닦을 때>도 슬슬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글씨를 쓸 때>도 100% 제대로 써야 된다. <운동을 할 때>도 조금 하다 말면 안 된다. 선생처럼 기어이 해야 ‘완성’에 이른다.

◎ 나머지는 오늘 밤에 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